

# “꿈의 세상이 현실로 다가온다”

“더 빠르고 더 싸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앞둔 정보통신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풀어야 할 화두는 이미 던져졌다.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전세계 정보통신 기업들은 치밀하고 발빠르게 새로운 밀레니엄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 각국은 90년대 들어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하부 구조인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활용을 위해 범국가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값싸고 빠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정보화를 촉진하는 지름길이라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95년 만들어진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을 시작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최근 결실을 보고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유·무선 영역구분이 없어지는 등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편집자>

## 관련 기술 동향

시내전화 공중망(PSTN)과 케이블 TV 전송망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급속한 기술발전 등으로 광대역 네트워크로 발전했다. 정보통신 이용자들의 요금의 싸고 속도가 빠른 서비스요구에 맞게 정보통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업체들도 기술 개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서 개인이나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정보를 얻는 것이다. 속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화두가 된 것이다. 빠른 속도를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데 더 빠른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 이동전화 서비스

이동전화업계에서 최근 경쟁의 초점은 차세대 무선데이터 서비스이다.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해서 다양한 정보검색과 전자상거래까지 가능토록 했다. 지난 84년



이동전화가 처음 선보였을 때만 해도 PC와는 별개였지만 무선 데이터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빠른 속도의 무선인터넷으로 발전했다.

이미 이동전화에서 Kbps가 사라지고 Mbps시대를 맞았다. 무선데이터 서비스 경쟁에서 속도경쟁으로 이어졌다. 속도가 빨라지면 이용요금이 절약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이용자들은 무선데이터 서비스가 빨라질수록 값싼 요금으로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정보통신분야에서 속도경쟁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선전송기술이다. B-WLL이나 IMT-2000, 위성인터넷 등을 꼽고 있다.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위성인터넷은 지난해부터 한국통신과 삼성SDS에서 직접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통신위성을 이용해서 지금보다 더욱 빠른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위성 인터넷은 일반 가입자들도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 등 단체 이용자들도 근거리 통신망을 통해 빠른 속도의 전용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속도는 최고 3Mbps 까지 선택할 수 있다.

### 유선통신 서비스

무선통신 뿐만 아니라 유선통신에서도 하나로통신의 등장으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보통신의 최종 목표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방법으로 빠르게 주고받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등장한 수단이 유선 분야에서 광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초고속통신망이다.

현재 우선 순위를 감안해 대도시 빌딩을 대상으로 광통신망을 구축해서 다수의 가입자를 확보한 다음 일반 가정까지 광통신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소외계층이던 일반 가입자들도 양질의 초고속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선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용량 광전송장치이다. 광전송은 기존 구리선 방식의 전송방식에 비해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전송품질과 속도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지고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다.

정보통신의 속도와 요금인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가입자망(네트워크 시설) 기술이다. 다시말해 정보통신 속도 기술이다. 가입자망이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빨리 전송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통신이나 PC통신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주고 받느냐와 다르지 않다.

한국통신이나 하나로통신 등 유선통신업체들이 적용하고 있는 종합정보통신망(ISDN), 비대칭디지털가입자망(ADSL)의 기술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 유선통신망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통신,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바람이 어느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이같은 유선기간통신망과 무선통신망은 인터넷의 속도와 직결된다. 인터넷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무선기술 발달에 따른 속도경쟁에 가속이 붙었다. 이용자들은 갈수록 저렴한 가격에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인터넷 포털서비스

네이버, 네띠앙 등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서비스 업체들은 홈페이지의 정보를 불러오는 시간을 크게 줄여 이용자들이 더 빨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이트내의 불필요한 특수효과를 걷어내 이용자가 원하는 화면을 빨리 불러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홈페이지 문서작성시에도 일반적으로 로딩에 시간이 걸리는 화면분할이나 화면이동 등의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에 작성된 홈페이지에서도 불필요한 그림정보는 없애는 추세다. 별도의 비용을 투자해 운용장비 용량을 늘리고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는 접속망을 확충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홈페이지에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컴퓨터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시행한 '인터넷 PC' 사업은 국내 PC시장의 저가화를 촉진시켰다. 현대멀티캡, 세진컴퓨터랜드, 현주컴퓨터 등 이 정책의 사업자로 선정된 12개사 대부분은 일반 및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저변을 넓혀온 중견 PC업체들이다.

지금까지 저가화에 소극적이던 삼성전자나 삼보컴퓨터 등 대기업들도 저가화가 전세계 PC시장의 주도적인 흐름으로 급속히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속속 새로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실제로 대규모 메이커 가운데 저가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인 삼보컴퓨터의 경우 주력제품이 지난 1월 180만원에서 2월 140만원, 6월 99만원 등 반년만에 절반 가까이 떨어

어지는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력제품군의 가격은 고정된 가운데 사양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던 기존 PC시장 패턴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특히 모뎀의 경우 내년초부터 하이엔드 PC를 중심으로 현 56K 전화모뎀에서 최고 8M 속도의 ADSL(비대칭형 디지털 가입자망) 모뎀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 급격한 속도향상이 예정되고 있다.

## 정보통신장비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의 우열은 근본적으로 어떤 장비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현대전자, 한화 등 통신장비업체들은 초고속 무선 데이터 서비스, 장기적으로는 꿈의 이동전화라 일컬어지는 IMT-2000 서비스에 발맞춰 고속 단말기 및 장비를 보다 싸게 공급하는데 경영자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94년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상용화를 계기로 국내 장비업체들의 경쟁력은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올라갔다. 예전에는 사실상 전무했던 이동전화 단말기의 수출이 본격화 된 것도 CDMA시대 이후부터이다. 이밖에 ADSL장비, ISDN장비, 케이블 모뎀 관련 장비 등 차세대 초고속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 관련 업체 동향

### 한국통신

한국통신은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마련했다. 보다 빠르고 내실있는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통 네트워크담당 관계자는 한미르(KT114 정보와 인포샵을 통합한 인터넷 포털 서비스) 서비스 망 구조를 방사형으로 설계해 이상 발생시 우회 복구가 가능한 점이 강점이라고 말한다.

다른 통신회사와 달리 루트의 이원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또 일반 전화사업자의 백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내세울 만하다. 다른 회사의 경우 50Mbps인데 비해 한통은 전국적으로 세배 이상인 200Mbps 백본망으로 구성돼 있다.

한통은 백본망을 기기급으로 전환중이다. 올해안에 2.5기가급



으로 완성할 경우 경쟁대상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연말이 되면 신축건물에 23만회선, 기존 건물에 8만 2천회선의 광통신망이 깔리게 된다.

한통은 또 동영상이 가능한 초고속 위성 인터넷에 승부를 걸고 있다. 이는 무궁화 위성을 이용해 최고 1Mbps의 초고속으로 인터넷을 즐기 수 있다. 위성을 이용한 상품이어서 병목현상없이 동영상을 실시간 멀티미디어 방송구현이 가능하다. 산간 오지에서 도 저렴하게 망을 구성할 수 있어 인터넷 인구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 데이콤

데이콤은 올초 인터넷 사업에 전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전산센터를 확보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8월 서울 논현동에 아시아 최대규모의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확보한 것이 데이콤의 인터넷 사업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상징이다.

이달 1일 오픈하게 될 인터넷 데이터센터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서버를 모아 관리와 운영을 대신하는 서비스와 인터넷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데이콤의 최첨단 전산 통신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센터는 국내 주요 콘텐츠와 주요 인터넷 회선을 직통으로 연결해 줌으로써 고객들은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 센터에 입주하는 모든 사업자의 서버를 일괄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 운영해 줌으로써 콘텐츠 사업자나 호스팅 사업자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서버 운영이나 네트

워크 접속문제 등에 신경을 쓰지 않고 우수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도록 한다.

데이콤은 이 전산센터에 기업들의 인터넷 중심단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명함 소프트웨어 업체인 피코소프트와 제휴하고 웹호스팅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연내에 LG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면 세계적인 종합정보통신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새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하나로통신

제2시대전화 회사인 하나로통신은 국내에서 통신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비대칭디지털가입자망(ADSL)에 승부를 걸고 있다. 구리선보다 100배 빠르다는 점을 광고문안으로 내세워 선두 통신업체들에 도전하고 있다. 월 2만 9천원(부가세 및 모뎀 임대료 별도)만 내면 최고 1Mbps급 속도로 초고속 인터넷을 24시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ISDN 요금 수준으로 기존 전화선 모뎀보다 약 17배, 그리고 ISDN 서비스 보다 6배이상 빠른 초고속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고객에게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하루 평균 2천여건에 이르는 문의전화 대부분이 이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로통신은 ADSL서비스가 미처 못미치는 지역에는 케이블 TV(CATV)망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광주와 대구에서 CATV망 초고속 인터넷 상용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이어 안양과 과천, 의왕, 군포, 수원 등 수도권 5개 지역에서 상용서비스에 들어갔다.

한편 하나로통신은 울산과 원주, 순천, 여수, 광양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후 11월부터 상용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 SK텔레콤

스피드 011의 무선데이터 종합 브랜드인 'nTOP'을 내놓고 지난달부터 무선으로 최고 115Kbps 속도를 구현한 IS-95B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대적인 무선데이터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SK텔레콤은 nTOP을 통해 무선 전자상거래 서비스, 생활정보 서비스, 오락 서비스, 맞춤형 정보 서비스 등 크게 4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무선 전자 상거래 서비스는

증권투자 분석 정보 서비스, 은행 입출금 조회 및 계좌이체, 신용카드 조회 및 보험 서비스, 그리고 각종 상품구매 및 티켓 예매, 경매 등의 전자 상거래 서비스를 무선으로 제공한다.

오락 서비스는 네트워크 게임, 문화 및 여행 정보, 현상 공모, 스타 데이트 그리고 신곡 서비스 등 젊은층의 정보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맞춤형 정보 서비스는 개인

의 주소록 관리 및 일정관리, 자산관리, 메일 송수신 등 자신만의 정보메뉴를 구성하여 이동전

화가 개인비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011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단말기와 노트북컴퓨터를 연결해 무선으로 인터넷, TV, 방송 등 유선에 버금가는 무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신세기통신

최근 무선 데이터 서비스의 전송속도를 28.8Kbps로 높인 신세기통신은 연말부터 WAP 기술에 기반한 전자 상거래 등 다양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휴대폰 액정 화면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Phone.com사 WAP 관련 기술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WAP는 전자 상거래를 위한 보안 기능인 WTLS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신세기통신은 국내 최초로 국제규격의 이동전화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세기통신은 전자메일, 전자메일 착신통보, 증권정보 검색, 뉴스정보 검색 등 기존의 제한된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뛰어 넘어 은행계좌 조회 및 송금, 신용카드 내역 조회, 실시간 주식주문 및 계약 체결, 영화,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



을 예매하고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전자 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세기통신은 무선 데이터 서비스와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IS-95C 시스템을 도입해 데이터 전송속도를 4Kbps로 대폭 향상시킬 방침이다.

## 한통프리텔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양방향 대화형 문자정보 서비스 핸드넷을 기반으로 지난 2월부터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PCS016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서비스는 웹브라우저가 단말기에 내장돼 있지 않고 016의 자체 핸드넷 SMS서버에 위치하여 가입자가 간접적으로 인터넷 정보에 접속하는 방식이다.

한통프리텔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타사와 가장 차별되는 점은 340만 가입자 누구나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기술적 대중성이다. 특히 양방향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가입자도 아무런 장벽없이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수백만 건의 접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의 웹브라우저 비내장형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웹브라우저 내장형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사들과 협력을 통해 HDML언어 및 HDML언어로 작성된 인터넷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 다음달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HDML환경을 채택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 LG텔레콤

기존의 데이터 전송속도보다 4배 빠른 IS-95B 상용서비스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대 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IS-95B는 데이터 전송속도가 기존 무선망 속도보다 4배이상 빨라 현재 제공중인 두 개의 데이터 서비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는 PCS폰에 노트북, 핸드헬드PC, PDA 등을 필요로 하는 무선 데이터 서비스와 또 하나인 PCS폰 하나로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일대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데이터 서비스로는 한글 1천자 분량의 A4용지 100장을


전송하는데 55초가 걸리지만 IS-95B의 경우는 12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무선분야에서 가장 빠른 전송속도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이동중에는 유선전화의 전송속도에 버금가는 64Kbps 데이터 전송속도로 각종 정보조회는 물론 데이터 송수신, 인터넷 검색 및 PC통신 접속 등의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한솔PCS

지난달 1일부터 IS-95B 서비스에 나선 한솔PCS는 컴퓨터통신, 인터넷 정보검색은 물론 각종 영상과 음성을 전송받을 수 있는 리얼 TV, 리얼 오디오, 애니메이션 채팅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도 가능하다.

한솔PCS는 초고속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MSM 3000칩이 탑재된 웹브라우저 폴더형 현대 걸리버 메이트를 업계 처음으로 전국 대리점에서 판매중이다. MSM 3000칩 내장 PCS폰 업그레이드를 지난달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솔PCS는 무선 데이터 관련 부가 서비스를 멀티미디어 시대에 요구되는 이동전화가 단순히 음성통화만 오가는 일차원적 개념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멀티미디어 단말기로 탈바꿈한다.

018 PCS 단말기를 이용해 국내 최대 PC통신 업체인 데이콤 천리안의 다양한 정보검색과 4대 PC통신 쪽지보내기 기능, 018 가입자간 문자채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한국비엠씨소프트웨어

### 신임사장에 손영진씨 선임

한국비엠씨소프트웨어는 최근 주수영 지사장 후임으로 한국데이타제너럴의 손영진 씨를 지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손영진 신임사장은 78년 서울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한국IBM, 한국썬, 굽타코리아 등을 거쳐 지난 96년부터 한국데이타제너럴 지사장으로 재임해왔다.

